



“지불 후 지급” 규칙의 이해

P&I 보장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지불 후 지급' (Pay to be paid)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원은 보장되는 책임, 손실, 비용 또는 지출을 충족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클럽의 이사진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또한 회원은 클럽의 자금에서 회수하기 위한 대출로써가 아닌 무조건 자체 자금에서 이러한 금액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클럽의 관계 및 책임이 제 3 자 청구인이 아닌 보험에 가입한 회원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영국 법률에 따른 입장

영국 법률에 따라,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클레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클럽을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기본 원칙은 클럽과 제 3 자 청구인 사이에는 계약 또는 불법행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1990 년 획기적인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제 3 자 청구인이 클럽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개인 상해 사건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상금 지급' 규정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2009 년부터 클럽 규정은 선원의 청구에 대해 이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2010 년 제 3 자(보험자에 대한 권리) 법은 2016 년 8 월 1 일 이후 클레임에 대해 하역업체와 승객에게까지 이 면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최근 2024 년 7 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시행된 것처럼 클럽에 대한 다른 제 3 자의 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MS Amlin Marine NV v King Trader).

프랑스 법에 따른 입장

최근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청구인이 해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오랜 '지불 후 지급' 원칙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법은 전통적으로 비해상 보험에 대해 프랑스 보험법에 명시된 대로 소송 청구인이 손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청구인들은 프랑스에서 P&I 클럽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선박을 압류하여 선주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러한 꺼림칙함은 '지불 후 지급' 규정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4 년 12 월, 프랑스 대법원은 부두 손상 사건에서 P&I 클럽이 보험에 가입한 선주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 프랑스에서 제 3 자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청구인이 클럽과 회원 간의 계약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불법 행위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리스 법에 따른 입장

그리스 법은 영국 법과 유사합니다. 그리스 법원은 최종 법원 판결에 따라 제 3 자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권리가 발생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P&I 클럽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3 자 청구인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P&I 클럽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야 보험사의 채권자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381/2008 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해상 보험에서 '지불 후 지급'의 지속적인 유산

해상 보험의 세계에서는 많은 주요 해운 국가에서 "지불 후 지급"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 소송이 허용되는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소송권이 없는 경우, 제 3 자 청구인은 이 원칙이 유지되는 클럽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